

##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불리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신자가 자신의 믿음을 알기 위해 아브라함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는 자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어떻게 부릅니까?

\_\_\_\_\_

로마서 4 : 16

\_\_\_\_\_

\_\_\_\_\_

\_\_\_\_\_

### I. 아브라함의 주변 환경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The Father of Multitude)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 년전 사람입니다.  
단군이 우리 민족의 시조로 불리워지듯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 난 사람이 아니고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은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_\_\_\_\_

강저편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_\_\_\_\_

여호수아 24 : 2

\_\_\_\_\_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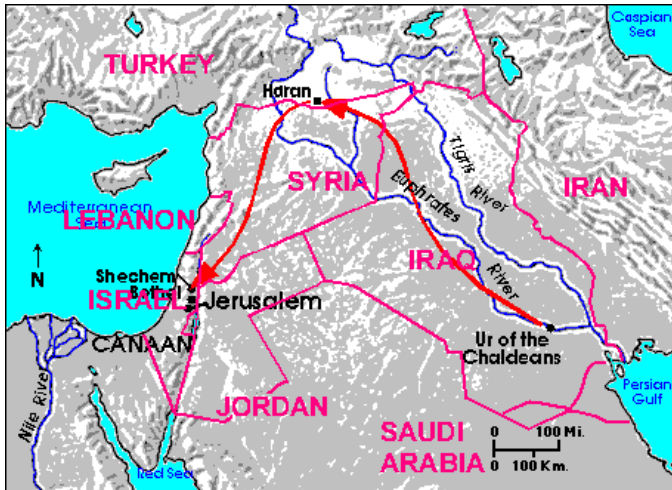
아브람의 두 형제 이름은? \_\_\_\_\_  
창세기 11 : 26

---

하란의 아들은 누구인가? \_\_\_\_\_  
창세기 11 : 27

---

---



(당시의 우르는 아주 문화가 발달된 우상숭배가 성행하던 개화된 도시)

사도행전 7:2-4에 의하면 우르를 떠난 아브람은 2차 부르심이 있기전 가나안에 오기전에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참조 : 창 11:31) \_\_\_\_\_

사도행전 7 : 2

아브라함은 첫번째 부름을 받은 후,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과 함께, 여태까지 살던 우르를 떠나 300마일 북쪽에 위치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란에 체재할 때 데라가 205살에 죽었습니다.

## II.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질, 2절과 3절은 부르심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범민족적 축복 믿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범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 :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떠났습니까? \_\_\_\_\_

히브리서 11 : 8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세가지는 무엇인가요?

창 12: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은,

불신자 시절 살던 삶의 스타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전의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2 :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불신자 시절 살던 Life Style은 무엇입니까?  
(강의를 듣고 답하기)

---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가 불신자들의 기본적 삶의 스타일입니다.

**인본주의**라 함은 신본 주의의 반대로, 인간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인간의 이성을 그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 시절의 본토입니다.

**세속주의**는 경건주의의 반대로 영적 즐거움보다는 육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것이 인본 주의자들의 친척입니다.

**물질만능주의**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중요시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 만능 주의는 불신자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인본 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 주의에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창세기 12 :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

---

창세기 12 : 5

---

---

하나님께 순종을 하되 온전한 순종을 못한 경우, 그의 신앙 생활 안에 남아 있는 육신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점차 점차 징계의 손길을 가하시며, 연단을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점점 온전한 신앙인격으로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은 하되 온전한 순종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장성한 분량에 까지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100세가 된 노인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키워 주시며, 그렇게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까지 키워 주시는 것입니다.